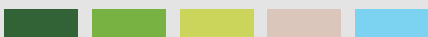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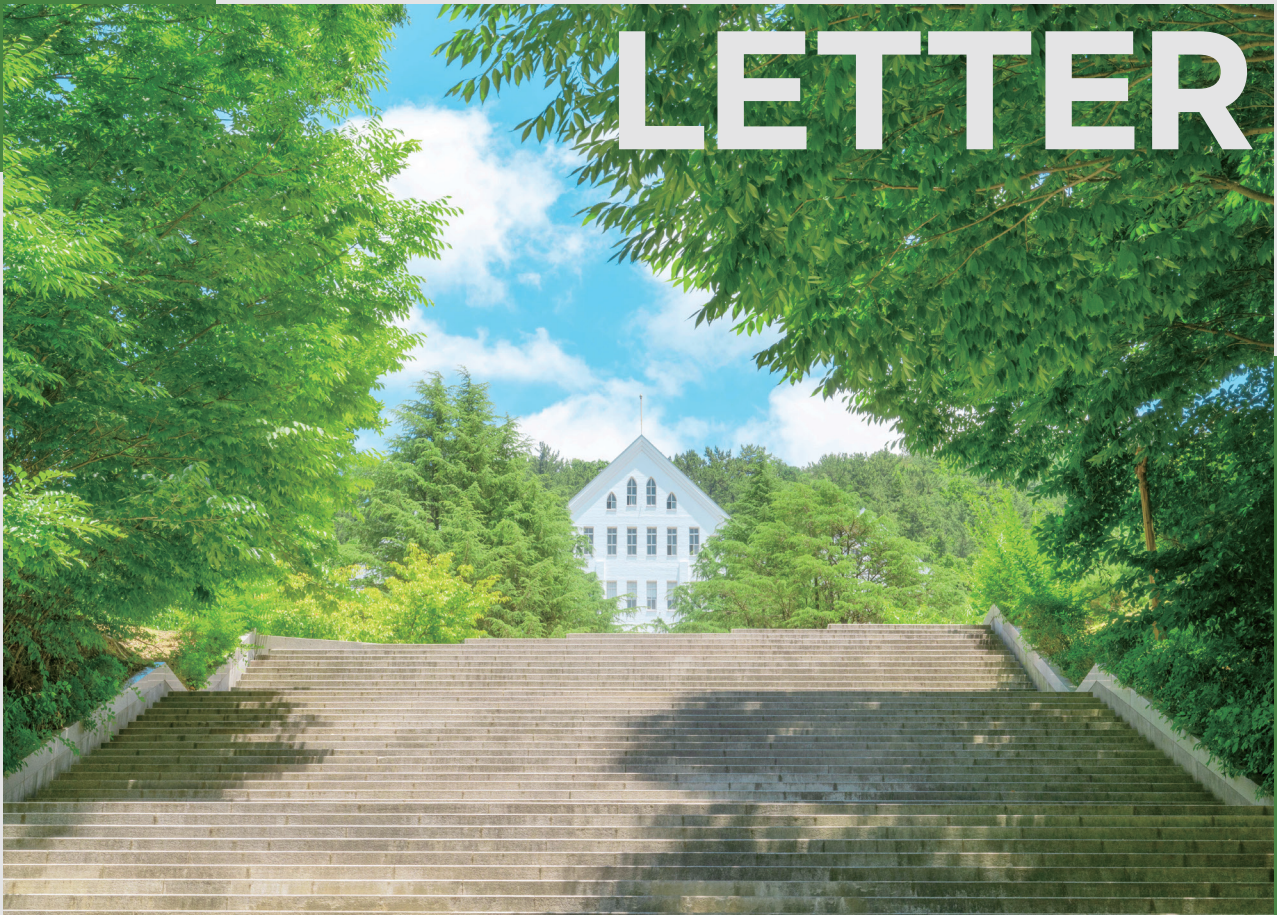


CSU GLOBAL

LETTER



2026 JUNE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2. 이달의 글로컬 소식
3.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4. 학생이 전하는 글로컬 이야기
5. 언론이 주목한 글로컬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글로컬대학추진단

목 차

●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 2. 이달의 글로벌 소식

- 06 전공의 경계를 넘어, 함께 여는 학사 혁신, 2027학년도 전공자유선택 학사운영 설명회
- 07 글로벌 창업 현장에서 미래를 만나다, Global Startup Insight Camp
- 09 캠퍼스에서 시작하는 글로벌 웰에이징 협력, G-하트온 글로벌 웰에이징 솔루션 국내 프로그램

● 3.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 11 글로벌대학 성과를 한눈에, 글로벌대학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13 세계가 주목한 조선대의 웰에이징 실천, 국내 최초 AFUGN 우수사례 등재

● 4. 학생이 전하는 글로벌 이야기

- 14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통합 확정, 새로운 도약의 시작!
- 15 학교 안에서 숨은 글로벌 찾기
- 16 조선대 학생들은 글로벌대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5. 언론이 주목한 글로벌 조선대학교

- 17 조선대, '2026 교수역량 아카데미 캠프' 성료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해조류 기반 웰에이징 협력 시동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글로벌대학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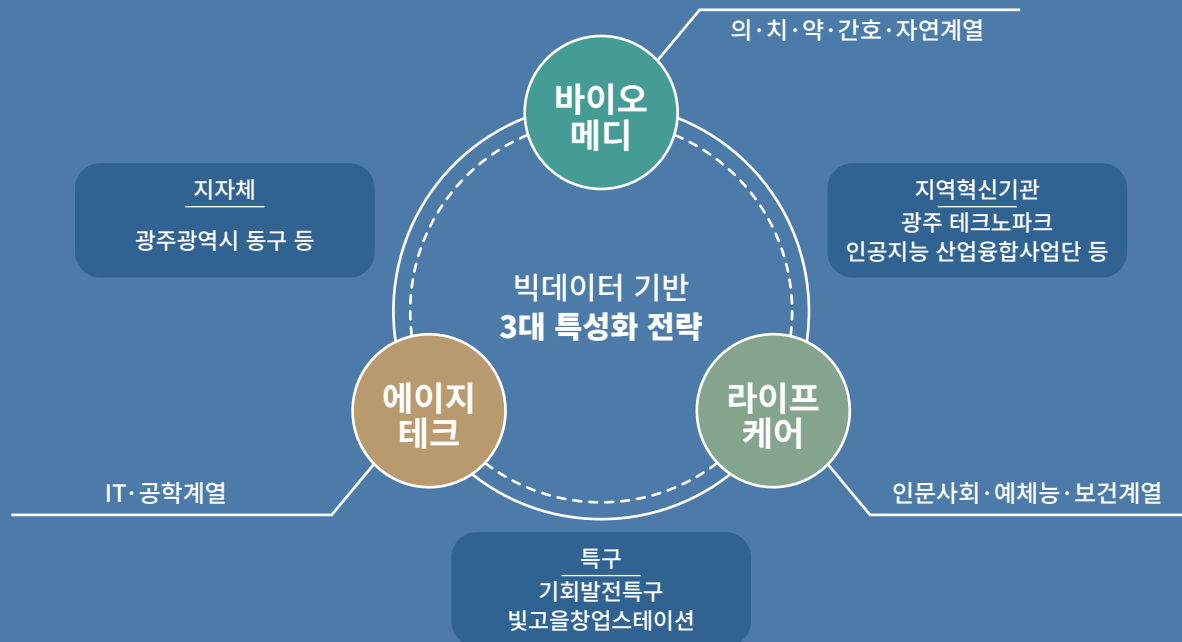
글로벌(Glob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의미합니다.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핵심 비전

“웰에이징 Asia No.1대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미래형 대학

웰에이징 3대 특성화 전략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및 바이오,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건강하고 편리하며 행복한 삶의 실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특성화 분야



교육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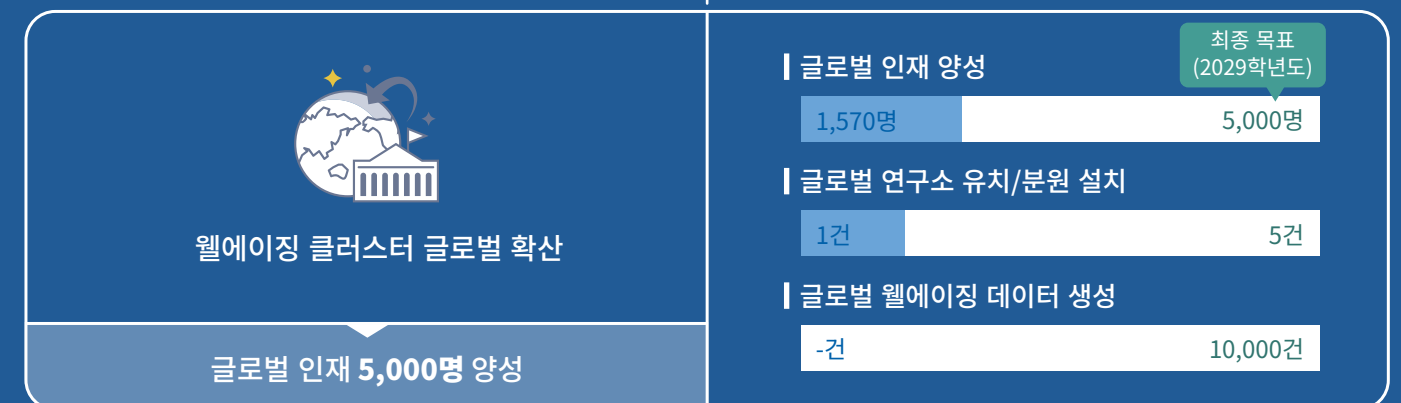
■ 달성값 ■ 목표값
기준 일자: 2026. 6. 30.



연구혁신·지산학협력



글로벌 도약



이달의 글로벌 소식



▲ 2027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 학사운영 및 전공배정 설명회 현장

전공의 경계를 넘어, 함께 여는 학사 혁신 2027학년도 전공자율선택 학사운영 설명회

3대 특성화 중심 학사구조, 현장과 공유하다

조선대학교 교육혁신원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본관 2104호에서 ‘2027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 학사운영 및 전공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특성화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2027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 신입생의 학사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참여학과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3개 차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차(6/15) 라이프케어대학, 2차(6/16)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대학, 3차(6/17) 글로벌융합스쿨 협력 학과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차수별로 1차 86명, 2차 80명, 3차 127명 등 총 293명의 학부(과)장·교원·조교와 교학팀·유관부서 직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공배정부터 학생지원까지, 한자리에서

설명회는 교육혁신원장의 개요 발표를 시작으로 ▲전공배정 운영기준 및 절차(학사팀) ▲전공탐색 및 학생지원체계(전공진로길라잡이팀) ▲교양교육 운영계획(기초교양교육팀) ▲예산지원 및 조직·공간 운영(기획처) 안내가 차례로 이어졌다. 특히 전공배정은 기본원칙과 신청 절차, 학과별 수용 가능 인원 검토 기준, 학생 민원 대응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학생지원 분야에서는 상담·학사지도 체계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전공탐색을 지원하는 ‘AI Guiding Star 시스템’ 구축 계획이 소개되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사운영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공 선택 방식과 1학년 학생의 소속감 강화 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핵심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글로벌대학 사업의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참여학과·유관부서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 소통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글로벌 창업 현장에서 미래를 만나다 Global Startup Insight Camp



코엑스에서 시작된 1박 2일 글로벌 창업 여정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휴학생 24명이 참여한 ‘Global Startup Insight Camp’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됐다. 서울 코엑스(NextRise 2026)와 AWS 오피스, 강남 창업허브센터 등을 찾은 이번 캠프는 글로벌 창업 현장 체험과 기업·기관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이해를 높이고, 산업별 창업 트렌드와 비즈니스모델·투자 연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전형 글로벌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Rise부터 AWS까지, 현장에서 배우다

학생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 ‘NextRise 2026’을 참관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와 산업별 기술 트렌드, 투자·기업 협업 사례를 조사하고 관심 산업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BM)을 분석했다.

캠퍼스에서 시작하는 글로벌 웰에이징 협력 G-하트온 글로벌 웰에이징 솔루션 국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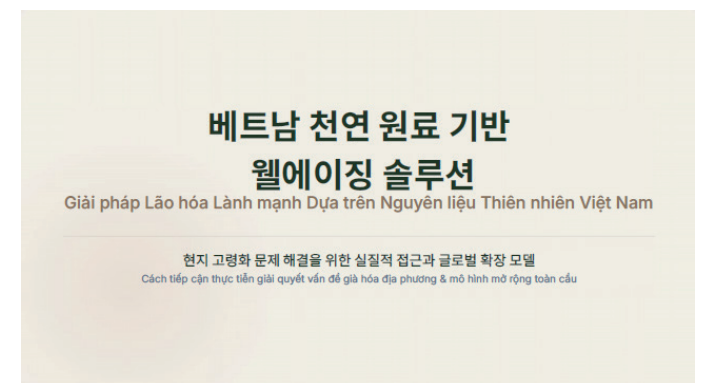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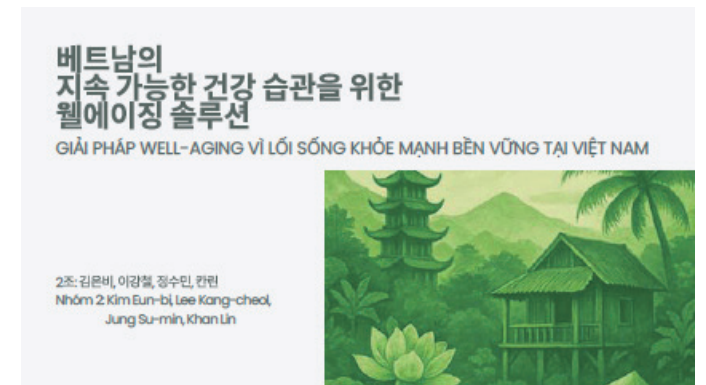
베트남 유학생과 한 팀, 고령화 해법을 함께 찾다

국제협력팀이 운영한 'G-하트온 글로벌 웰에이징 솔루션 프로그램'(국내)이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간 국제관 1층 글로벌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본교 주요 유학생 출신국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연계 '광주형 ODA' 정책에 발맞춰 개도국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현지 고령화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협력 활동이다. 베트남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 16명이 팀을 이뤄 글로벌 웰에이징 ODA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참여했다.

기획에서 파견까지

학생들은 내외국인 협업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고령화 현안을 분석하고 웰에이징 솔루션을 기획했다. 팀별 밀착 멘토링과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을 구체화하고 현지 적용 가능성까지 검증했으며, 중간보고회 평가를 거쳐 해외 파견 대상자 12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투이러이대학교에 파견돼 현지 환경에 맞춰 솔루션을 보완하고, 약용 자원을 활용한 생리활성 물질 추출·분석 실습과 현지 고령층 건강관리 수요 조사를 거쳐 현지 맞춤형 웰에이징 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 G-하트온 글로벌 웰에이징 솔루션 국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솔루션 발표자료



이어 'NextRise 인사이트 리포트 워크숍'에서 산업 트렌드를 정리해 서비스 컨셉을 재구성하고, AWS Korea 전문가 특강으로 AI·클라우드 기반 기술 변화와 글로벌 기술기업의 직무 역량을 이해했다. 팀별 인사이트 리포트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시장성·실행 가능성·확장성 관점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완했으며, AWS 오피스와 마루180·360,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탐방하며 민간·공공 창업지원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탐방을 넘어 창업으로

참가자 전원이 산업 인사이트 리포트를 작성·발표하며 산업별 기술 트렌드와 스타트업 BM, 투자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역량을 키웠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4.8점(만족 이상 응답 100%)을 기록했다. 참가 학생들은 NextRise 현장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를 직접 접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AWS 특강과 오피스 투어를 통해 AI·클라우드 기반 산업 변화와 글로벌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시 참관에 그치지 않고 팀별 인사이트 리포트 작성과 발표까지 이어져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창업성장지원팀은 참가자 e-Portfolio를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차년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교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국내외 창업 전시·기업탐방에 연계해 데이터 기반 글로벌 창업 인재 양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학생들이 전하는 이야기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빛난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국경과 전공의 경계를 넘어 한 팀이 된 학생들은 협업의 가치와 웰에이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키웠다. 프로그램을 마친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시각디자인학과
김○아 학생



프로그램 전엔 '웰에이징'이 무척 낯설었는데, 자료를 찾고 팀원들과 기획하며 웰에이징의 개념과 안티에이징과의 차이, 사례까지 공부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의사소통·실무 역량을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베트남의 현지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팀워크의 중요성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배웠고 우리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무역학과
함○○양 유학생



문예창작학과
강○향 학생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산업의 흐름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전공 특성상 평소에 다뤄볼 기회가 없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현지 친구와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 매우 값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시각디자인학과
김○현 학생



경영학부
정○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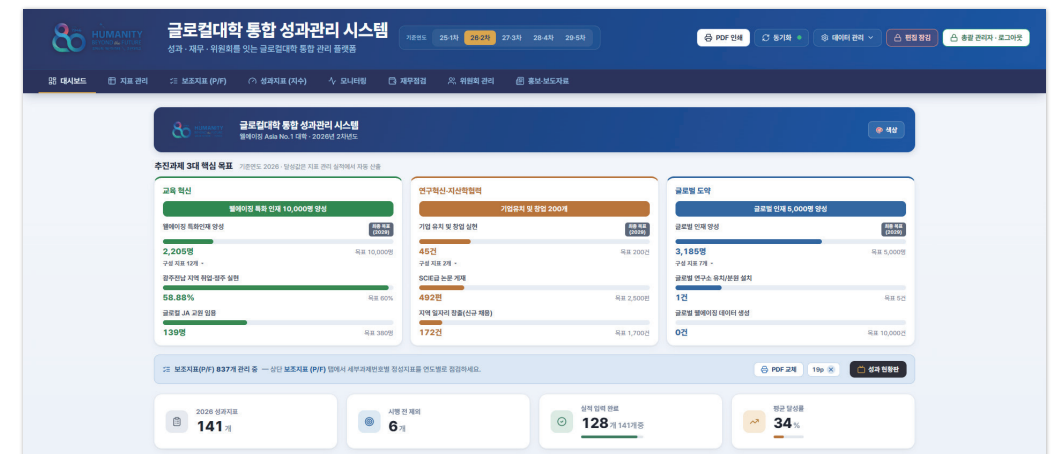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매주 팀원들과 만나 의견을 정리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제가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보완할 수 있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며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짧은 4주였지만 학생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을 넘어 하나의 해법을 만들어냈다. 이 경험은 7월 베트남 현지 파견으로 이어지며, 국내에서 기획한 웰에이징 솔루션을 실제 현장에서 완성하는 값진 무대가 될 것이다.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글로벌대학 성과를 한눈에 글로벌대학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글로벌대학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대시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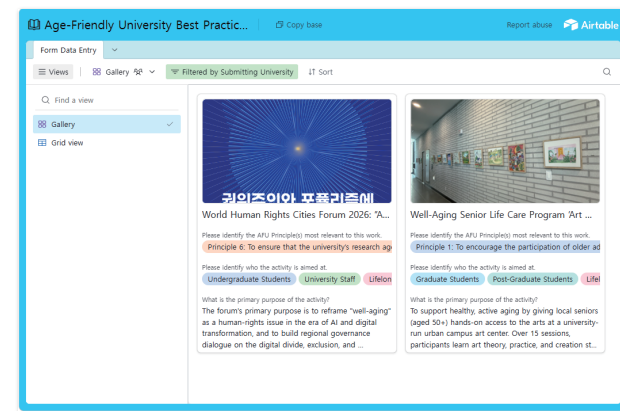
글로벌대학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달성을 위해 다수의 성과지표와 예산 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성과관리는 부서별로 흩어진 엑셀·수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성과지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 현황 같은 핵심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해 점검하고 환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추진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표·예산·모니터링·거버넌스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자체 시스템인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웹 기반)'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3대 비전 영역별 성과지표와 핵심 성과지수, 세부과제별 달성값·목표·달성률과 예산 집행을 통합 관리한다. 부서가 실적과 보조지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집계·달성률을 산출하고, 차수별 모니터링 판정과 점검의견, 조치계획 환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1. 전체 성과, 지표 달성률 현황 확인
2. 부서별 모니터링 및 환류 관리
3. 예산관리 DB 및 거버넌스·운영 지원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세계가 주목한 조선대의 웰에이징 실천
국내 최초 AFUGN 우수사례 등재

▲ AFUGN 우수사례 2건 등재 현황

조선대학교의 웰에이징 실천 프로그램 두 건이 고령친화대학 글로벌 네트워크(AFUGN, Age-Friendly University Global Network)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AFUGN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s)’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FUGN은 2012년 출범해 전 세계 11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고령친화대학 10대 원칙을 구현한 우수 프로그램만을 선별해 수록한다. 이번에 선정된 두 사례는 조선대 인권센터의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조선대학교 특별회의’와 조선대 미술관·광주 동구청이 공동 운영한 시니어 예술교육 ‘미술산책’이다. 조선대는 지난해 정회원 가입 1년 만에 두 건을 등재하며 실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기대효과

1. 국제 표준 모델로 확산

: 전 세계 110여 개 회원대학이 참고하는 우수사례로 공유되어 조선대 모델의 국제적 확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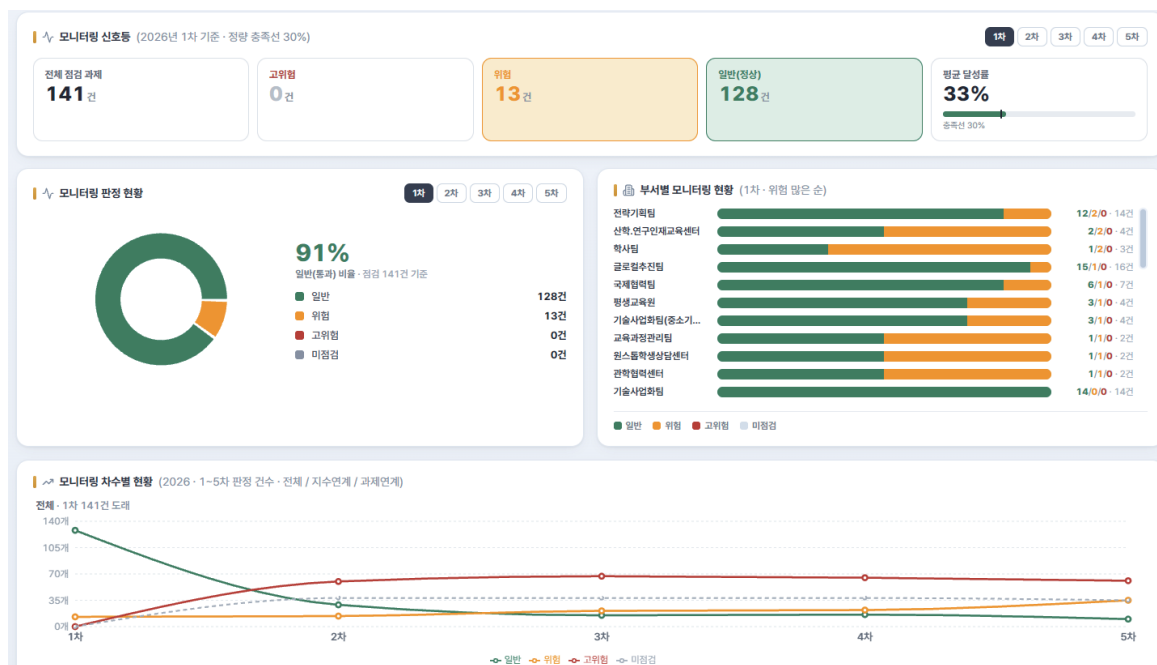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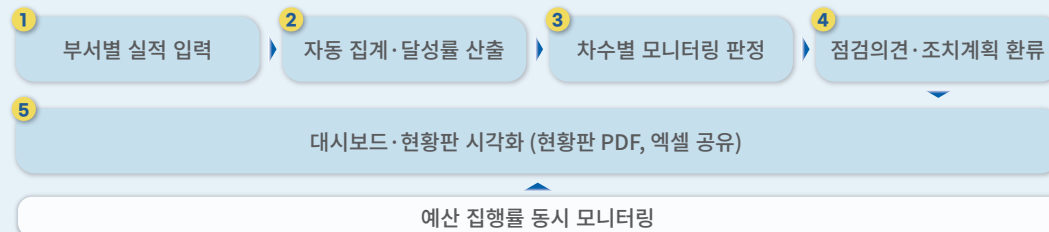
2. 대학-지역사회 연계 협력 모델의 가치 입증

: 인권·예술 기반 프로그램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웰에이징 협력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

3. 글로벌 허브 체계 구축 가속화

: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비전 실현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의 발판 마련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작동 흐름



▲ 글로벌대학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기대효과

1. 실시간 성과 점검 체계 확보

: 흩어져 있던 지표·예산·모니터링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 사업 전반의 진척을 즉시 파악

2. 부서별·차수별 모니터링·환류 체계화

: 실적과 판정을 자동 집계하고 점검의견·조치계획을 연계해 체계적인 성과 환류가 가능

3. 사업-재정 통합 관리

: 예산 집행률을 성과지표와 동시에 모니터링해 사업과 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 관리

4.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대시보드·현황판 시각화로 의사결정 근거를 확보하고 보고·공유 효율을 제고

학생이 전하는 글로벌 이야기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통합 확정, 새로운 도약의 시작!

우리 학교에 아주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통합이 최종 확정되며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는데요.
이 변화가 우리 학우들에게 어떤 의미와 기회를 가져올지, 서포터즈가 학우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6년 5월 29일 교육부의 공식 승인을
통해, 2027학년도에는 더 강력하고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춘 통합 '간호대학'이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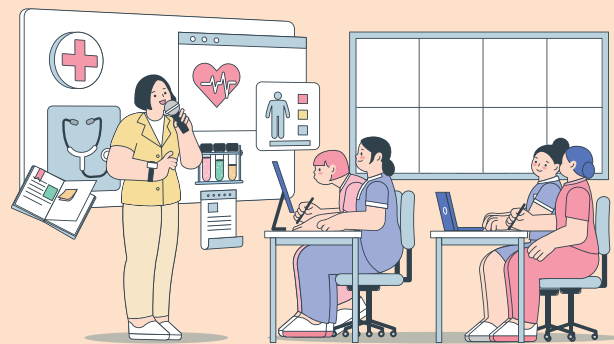
출범하여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두 대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
조선대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합이 우리 학우들에게 가지는
진짜 의미와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호·보건 계열의 꿈나무들을 위한 호남 지역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대학이 가진 우수한 교육 역량이
합쳐지면서 당장 우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최첨단 의료
시뮬레이션 센터와 최신 실습장비 등 양 교의
인프라를 공유하며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선대병원 등과 연계된 양측의 탄탄한
보건·의료계 동문 네트워크가 하나로 묶이면서
취업 준비와 진로 선택에도 강력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통합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대학' 추진에도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어 우리 조선대학교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조선대학교의 당찬
발걸음! 앞으로 어떤 멋진 미래가 펼쳐질지,
서포터즈와 함께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에서 숨은 글로벌 찾기

우리가 매일 누리는 대학생활이
바로 글로벌이었다고?!



혹시 '글로벌대학'이 거창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지셨나요?
사실 글로벌대학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대학생활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조대생의 하루에 숨은 '진짜 글로벌 핵심 프로그램'을 쏙쏙 골라 소개합니다!

내 꿈의 방향을 잡는 '진로 탐색 & 융합전공'

내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더라도
AI 진로 탐색·AI 흥미적성 진단,
GPS 멘토링, 1:1 전공상담을 활용해 탐색해요.
최근 성황리에 열린 다전공 박람회 이어
곧 융합전공 신청 기간도 다가옵니다!



나의 전공을 세계로 확장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 멘토링/파견 프로젝트,
웹에이징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젝트 학기제, 국제 공동연구 등
해외 파견·교류 기회가 가득합니다!



취업 성공을 위한 '실무능력 강화'

웹에이징 프로젝트 학기제,
현장 전문가 멘토링, 1:1 컴퍼니 트랙까지!
고학년을 위한 탄탄한
취업 내비게이션이 되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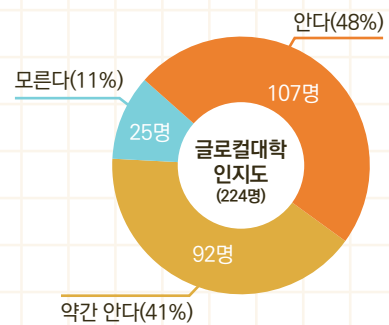
우리가 머무는 곳의 변화 '학생 중심 교육환경'

본관 3층에 새로 문을 연
글로벌 홍보관·글로벌 소풍실,
그리고 글로벌백학사와
올해 완성될 글로벌라운지까지!
캠퍼스가 학생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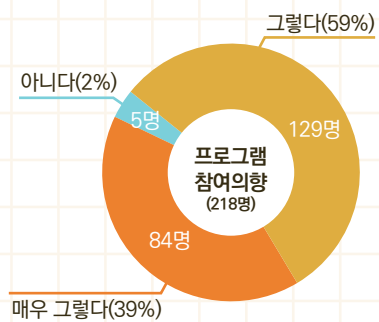
조대생들에게 물었다 조선대 학생들은 글로벌대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CSU 글로벌대학 홍보 서포터즈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조선대학교 재학생 232명(1학년 69명·2학년 57명·3학년 57명·4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생생한 인지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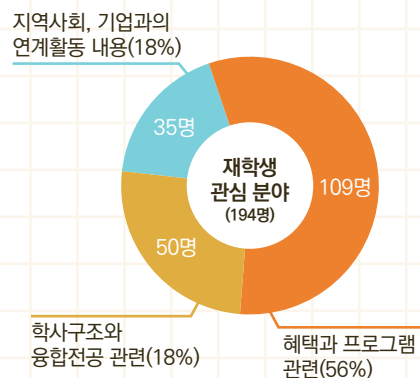
Q1. 글로벌대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과는 높은 인지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대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24명 중 '안다(107명)'와 '약간 안다(92명)'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조대생 10명 중 9명은 이미 글로벌대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글로벌대학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의향이 있으신가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학우들의 빛나는 참여 열정이었습니다. 글로벌대학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218명 응답)에서 '그렇다(129명)'와 '매우 그렇다(84명)'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무려 9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학교의 변화와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조대생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Q3. 글로벌대학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학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글로벌대학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것"을 묻는 질문(194명 응답)에 학생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109명으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학사구조와 융합전공 관련(50명),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연계 활동 내용(35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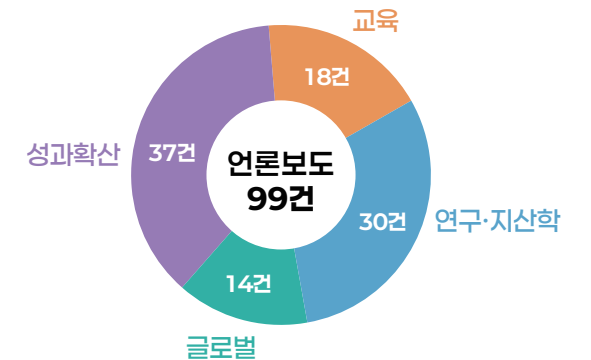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학우들이 글로벌대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나에게 직접 와닿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서포터즈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앞으로 조선대학교 글로벌 공식 인스타그램(@glocal_csu)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해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조선대 학우들을 위해 발로 뛰며 소통하는 글로벌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CSU 글로벌대학 홍보 서포터즈 1기 스토리텔링 류민서(K-컬처공연·기획학과 1학년)

언론이 주목한 글로벌 조선대학교

분야별 언론보도 현황(2026. 6. 30. 기준)

• 교육: 18건	학사, 교육과정, 인재양성, 대학 통합 등
• 연구·지산학: 30건	연구성과, 기술, 산학협력, 기업협력 등
• 글로벌: 14건	해외협력, 유학생, 글로벌 네트워크 등
• 성과확산: 37건	비전공유, 행사, 포럼, 홍보 등



조선대학교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2026 교수역량 아카데미 캠프'를 1박 2일간 열고, 글로벌대학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교수들의 웰에이징 융합교과목 설계 역량을 강화했다. 캠프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명회, 교수자 협업 마인드셋 형성, 국내 대학 융합교과목 설계 사례 학습, AI 도구를 활용한 공동 수업설계 실습으로 구성됐다.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가 학문 간 융합교과목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이후 사례 공유와 AI 활용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조선대는 오는 10월 2차 캠프를 열어 융합교육 확산과 교육혁신 성과 창출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선대, '2026 교수역량 아카데미 캠프' 성료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해조류 기반 웰에이징 협력 시동

조선대학교가 6월 9일 완도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연구진과 네트워킹 행사를 갖고 해조류 기반 웰에이징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소르본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로스코프 연구소는 해조류 생물학·해양유전체학 분야의 세계적 기관이다. 필립 포탕 소장 등 연구진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조선대는 해조류 기반 기능성 소재·해양헬스케어 제품 개발과 기술이전·기업지원 성과를 소개하고 9개 전문실험실을 공개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 학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대학



**CSU
GLOCAL
LETTER**

csu GLOCAL LETTER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